

2017 MAY

KazNKS

#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발행일: 2017.05.26



## 2017 한국-카자흐스탄 공공외교세미나

2017년 5월 5일(금)부터 6일(토)까지 2일간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이 주최한 “2017 한국-카자흐스탄 공공외교세미나”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 개최되었다. (p.2)

### 강연 1

이근중 교수  
KIMEP  
“뉴실크로드 경제통합을 위한 한-카 공공외교 중요성과 전략 - 카자흐스탄의 경제시스템 이해와 지정학적 중요성” (p.3)

### 강연 2

진용선 소장  
아리랑연구소  
“아리랑로드 - 집 떠난 이들의 노래, 이제 세계로” (p.4)

### 참석 후기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p.5)  
카자흐 국립대 (p.6)  
알마티 경영대, 카자흐 경제대, 알마티 한국어센터 (p.7)  
유라시아 국립대, 한-카 협력센터 (p.8)  
크질오르다 국립대, 한글학교 무궁화 (p.9)

### 참석 후기

광성컬리지, 동카자흐스탄 국립대, 언어교육센터 옥스포드팀, 타라즈 사범대, 타라즈 혁신인문대 (p.10)  
제티수 국립대, 탈디쿠르간 세종학당, 한글학교 아침노을 (p.11)  
도산한국문화한글학교, 기타 (p.12)

\* 이 뉴스레터는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kaznks.kz>)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카자흐스탄 인명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Center for Korean Studies,  
KazUIR&WL  
Tole bi 84, Almaty, Kazakhstan  
Homepage: <http://kaznks.kz>  
E-mail: [cks@ablaihan.kz](mailto:cks@ablaihan.kz)

# 2017 한국-카자흐스탄 공공외교세미나

## 한-카 수교 25주년 기념

2017년 5월 5일(금)부터 6일(토)까지 2일간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이 주최한 “2017 한국-카자흐스탄 공공외교세미나”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공공외교세미나는 한-카 수교 25주년 및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을 강의하는 교원, 대학원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정책 및 주요 외교 사안의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상호 이미지 제고가 가능한 이슈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알마티, 아스타나, 우스티카메노고르스크, 크질오르다, 탈디쿠르간, 타라즈, 칠크트, 악토베 등 8개 도시 20개 대학 및 기관의 교원 50명, 대학원생 및 대학생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일차에는 공공외교와 관련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이근중 교수(KIMEP)는 “뉴실크로드 경제통합을 위한 한-카 공공외교 중요성과 전략 - 카자흐스탄의 경제시스템 이해와 지정학적 중요성”을 통해 한국기업들이 기업정서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유라시아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의 경제시스템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공공외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진용선 소장(아리랑연구소)은 “아리랑로드 - 집 떠난 이들의 노래, 이제 세계로”를 통해 한민족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이 한인 디아스포라에 의해 세계로 퍼져나간 과정과 해외에서 출시된 희귀한 아리랑 음반들을 소개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2일차에는 한국학 교원들의 분임토의와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분임토의에서는 교원들이 공공외교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교육기관들의 긴밀한 연계를 위해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카자흐스탄 한국학 기관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각 기관들의 현황을 소개할 소식지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간담회에서 한만춘 공사(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는 한국어 및 한국학 교원들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공공외교 최전방에 있는 주요한 자원임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이 논의한 사안에 대해 공감하며, 한국학 교원들을 위한 공공외교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한국학네트워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강연 1. 이근중 교수(KIMEP)

### 뉴실크로드 경제통합을 위한 한-카 공공외교 중요성과 전략

카자흐스탄은 지형적으로 45억 인구를 가진 유라시아 한가운데 있는 가장 큰 내륙국가이다. 2013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주석과의 만남에서 중국이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아시아, 유럽, 중동을 하나의 철도로 연결하는 뉴실크로드를 제안했다고 한다. 뉴실크로드가 완성되면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의 모든 물류가 통과하는 물류 중심국이 된다.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어 양국 간의 경제와 정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도 하고 있다. 한 예로 러시아의 석유를 중국에 보내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의 13배에 달하는 영토에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구리, 희토류, 우라늄 등 천연자원도 풍부하다.

하지만 뉴실크로드 계획을 보면 동쪽의 시작은 중국에서 시작된다. 한국은 빠져 있다. 즉 한국은 서해를 통해 중국 동쪽 항구에서부터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이 유라시아아 시대와 뉴실크로드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통해 뉴실크로드를 연결할 수밖에 없다. 한국 입장에서 유라시아의 완성은 통일이다. 카자흐스탄과 한국간의 상호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카자흐스탄은 대한민국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나라이다. 첫째, 옛 소련 시절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으로 많은 고려인이 카자흐스탄에 이주하게 되었고, 현재 약 10만 명의 고려인이 정착하여 살고 있다. 고려인들은 부지런함과 끈기로 카자흐스탄 경제를 주도하는 많은 기업을 만들었다.

둘째, 1992년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전략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확약받았다. 96년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고 개방화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고 경제부국이 되었다.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모델이자 사드(THAAD)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입장을 소련과 중국에 대변해 줄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셋째, 독립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카자흐스탄 문화나 교육과정엔 옛 소련 시스템의 정서가 많이 남아 있다. 이를 이해하면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경제관념이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카자흐스탄 정부나 국민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중앙아시아 최대 경제도시인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 있는 한국교육원에는 1,000여 명의 카자흐스탄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또한 2015년 한국을 방문한 카자흐스탄 의료관광객 수는 8,092명으로 국가별 순위 6위이며 평균 지출액은 약 450만원으로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2위 국가이다.



상호간의 특별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많은 교류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공공외교가 중요하다.

경제 협력을 보면 한국기업은 자원 및 식품분야 등에 진출한 기업들이 만족도가 높았으며 카자흐에 없는 상품의 시장개척을 추진한 기업들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70%는 양국 간 가장 큰 차이점으로 현지인의 정서와 기업문화를 꼽았으며 투자위험요인으로는 현지당국 및 기업의 불투명성과 갖은 행정절차 변화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86.6%의 기업들은 카자흐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실패요인으로도 기업정서와 문화를 꼽았다. 이를 극복하고 유라시아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의 경제시스템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공공외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 강연 2. 진용선 소장(아리랑연구소)

### 아리랑로드

#### - 집 떠난 이들의 노래, 이제 세계로

아리랑에는 꿈이 있다.  
아리랑에는 희망이 있다.  
아리랑에는 미래가 있다.

#### 1. 이 땅에서 꽃 핀 아리랑

1896년 험버트(Homer B. Hulbert) 박사의 아리랑 기록

“한국인에게 아리랑은 밥이다.”  
- <The Korean Repository>에서

1926년 영화 <아리랑> 이후 아리랑 열풍

일제강점기는 아리랑이 꽃을 피운 시기  
- 일본, 중국, 러시아로 확산

#### 2. 일본으로 간 아리랑

일제강점기 노동자, 음반을 통해 일본에 아리랑 유입  
- 1930년 일본에 아리랑 붐

#### 3. 만주 땅을 울린 아리랑

만주(Manchuria)를 중심으로 정착  
- 아리랑, 디아스포라(Diaspora) 음악

#### 4. 아리랑,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1937년 강제이주  
- 9월부터 12월 고려인 17만명 중앙아시아로 이주



고려사람에게 아리랑이란?  
- 고려인 162명 아리랑 구술조사(2014-2016)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 엄마 생각이 난다 / 유 니나  
아리랑을 듣게 되면 모질게 기쁘다 / 천 미하엘  
할아버지는 온돌방에서 혼자 아리랑을 불렀다 / 유 발렌티나  
고려사람에게 아리랑은 애국가와 같은 노래다 / 김 겐나디  
아리랑을 부르는 사람은 한민족이다 / 김 림마

#### 5. 미국과 유럽으로 전해진 아리랑

#### 6. 아리랑, 이 땅에 돌아오다

아리랑은 누군가의 옷깃에 들어간 꽃씨와 같다.  
오래 전 우리 곁을 떠난 아리랑은 꿈과 희망을 노래하며  
꽃피고 있다.



## 참석 후기

### 알마티

- 기관명: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과
- 설립연도: 1998년
- 교원수: 18명
- 학생수: 308명 (전공 227명, 석사 10명, 박사 1명, 제2외국어 70명)

**이성숙:**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카자흐스탄 공공외교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또 이 세미나를 주관하신 대사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공공외교가 강화되고 두 나라가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카자흐스탄과 여러 모양, 여러 방향으로 공공외교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의 25년간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외교는 주로 일방적이었고 수직적인 외교였다고 압니다. 그러나 공공외교란 두 나라가 서로 상호간의 이해와 노력 하에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으로 상호 교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공공외교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카자흐스탄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나라라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에서 이루어진 경제분야와 아리랑에 관한 강의는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바라는 점은 카자흐인과 한국 민족간의 동질성에 관한 세미나가 좀더 많이 알려지고 연구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가 앞으로 좀더 발전되고 성장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 인나:** 이번 세미나에서 좋은 강의를 듣게 되어 제게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리랑 노래에 대해 이러한 연구가 있었고, 아리랑 노래는 이런 역사를 가졌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할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외교는 soft power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미나에서 한국인, 한국 문화, 한국의 자랑할 만한 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미나 범위에서 우리의 한국에 대한 지식들을 늘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한국의 새 정부와 새 대통령이 선택할 정책에 대해 강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양국간의 교류, 진행 프로그램,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강의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스페틀라나:** 세미나는 짧은 기간에 진행된 반면에 내용이 매우 풍부했습니다. 공공외교라는 주제는 전에도 현재도 요긴하지만 끝까지 이해되지 않았고 많은 부분은 CIS 대학생들에게는 낯선 주제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낯선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할 경우 적극적인 토론도 하기 위해 미리 그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예비 연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김 울리아나:** 먼저 공공외교 세미나를 주최한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세미나는 상호이익이 있는 양국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확신합니다. 공공외교는 정부외교만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더욱 효과적이라는 이근중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행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규모를 향상시키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 행사 때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일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날 오전에 시작하여 강의 수는 3-4개로 늘리고, 오후에 분과로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을 만들고, 다음 날에는 세미나의 결과를 종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는 한국-카자흐스탄 관계의 각 분야의 요긴한 주제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개최할 행사가 알찬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박 벨리:** 이근중, 진용선 강사분들의 강연은 내용과 방식 등 모두 좋았습니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발표 뒤 토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본 세미나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1. 연1회의 지속적인 개최
2. 세미나의 주제(공공외교) 수정
3. 하나의 소주제에 집중. 예: 2018년 - 한국과 카자흐스탄 경제협력의 문제점, 2019년 - 의료분야, 2020년 - 관광분야 등

**젯피소프 사켄:** 공공외교를 러시아어로 'народная дипломатия' (인민외교)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외교는 구소련에서 사는 많은 민족들의 갈등을 해소화하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외교에 강점과 좋은 점이 많습니다. 역사상 북오세티야-잉구시 충돌, 알마티주 말로보드노예 지역에서의 충돌 등이 공공외교를 통해서 해결된 좋은 사례들입니다. 공식 외교와 더불어 인민외교를 통해서 1) 한국과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양국 방문을 유도할 수 있고 2) 양국의 일상과 문화에 대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알마티 한국교육원과 같은 기관들이 할 수 있습니다.

## 참석 후기

### 알마티

- 기관명: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
- 설립연도: 1994년
- 교원수: 20명
- 학생수: 110명

**최 미옥:** 모처럼 우리나라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이근중 교수님의 '뉴실크로드 경제통합을 위한 한-카 공공외교 중요성과 전략 - 카자흐스탄의 경제시스템 이해와 지정학적 중요성' 강연이 너무나 중요했으며 우리들에게 유익했습니다. 또 우리들이 알고 있으나 더욱 보충할 수 있는 자료여서 좋았습니다. 진용선 소장님의 '집 떠난 이들의 노래' 강연 역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강의가 아주 필요합니다.

이제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공공외교세미나를 매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사들의 정치성과 사회적인 이해를 심어주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필요합니다.

1. 남북 간의 통일 문제 강의
2.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의 경제 발전 문제를 더 자세히 세심히 알고자 하며, 다문화 가정 역시 작지 않은 문제입니다. 물론 이 세미나는 공공외교세미나이니 교사들의 세미나가 아닌 것이 참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공외교세미나가 매년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시켄바예바 바히트굴:** 한-카 협력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뉴실크로드는 양국의 정치 및 경제 통합을 위한 길을 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세미나를 통하여 양국을 위한 뉴실크로드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리랑'에 대한 강연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많은 좋은 정보를 알게 되고 세미나가 매우 유익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세미나를 한국어와 러시아어로만 하는 것보다는 카자흐어로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 율리야:** 이런 유익한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에 감사를 드리고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근중 교수님의 강연은 한-카 공공외교의 전략을 이해하는 데에 유익했습니다. 강연 내용은 한국학 교육 자료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용선 소장님의 강연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데에 교육 자료로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세미나에서 실용자료를 교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미르베코바 우미타이:** '공공외교: 한국과 카자흐스탄'이라는 세미나는 응당한 수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간의 국제관계 및 외교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기로는 역사적으로 실크로드가 한국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실크로드에 참여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 및 국제화 시대에 한국은 뉴실크로드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자흐스탄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뉴실크로드는 이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리랑에 대한 강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명 드미트리:** 한국과 카자흐스탄 공공외교세미나는 유익하고 현재 필요한 주제의 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세미나의 두 강연은 공공외교세미나에 약간 맞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 자체는 좋았으나 아리랑 연구소 진용선 소장님의 '아리랑' 강연은 공공외교와 관련이 없고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1. 강연 시간 - 1시간
2. 최소 3개의 강연
3.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의 구분
4. 교원뿐 아니라 대학생, 대학원생의 참석
5. 강연 내용을 본교 논문집에 게재



## 참석 후기

### 알마티

- 기관명: 알마티 경영대 Language Center
- 개설연도: 2013년
- 교원수: 2명
- 학생수: 104명

**나재영:** 한국어 교사라는 대상에 조금 더 부합할 수 있는 주제와 커리큘럼의 접근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의 역사, 문화, 카자흐인의 사고방식을 고려한 교수법 및 한국어 학습자와의 좋은 관계(rapport)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도 제시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세미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관명: 카자흐 경제대 Language Center
- 설립연도: 2004년
- 교원수: 1명
- 학생수: 80명

**안 립마:** 무엇보다 본 세미나를 주최한 대한민국대사관과 대학교 선생님들과 강의를 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게 되어 전체적으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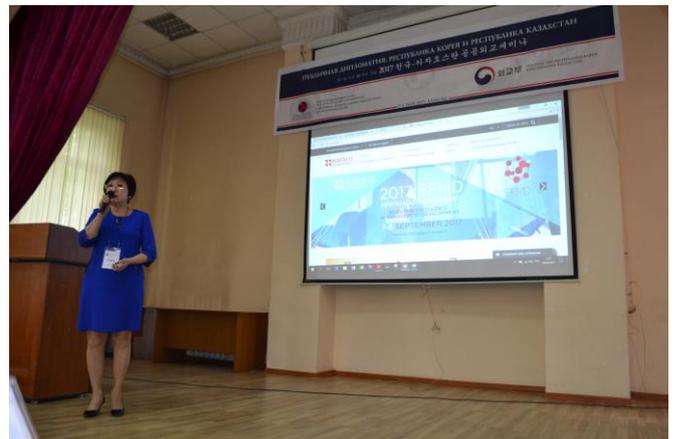
본 세미나는 하나의 행사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외교세미나를 통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간의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앞으로 세미나에 한국과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한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관계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습니다.

- 기관명: 알마티 한국어센터
- 설립연도: 2014년
- 교원수: 3명
- 학생수: 43명

**이 타티야나:** 이와 같은 행사에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기관만 아니라 카자흐스탄과 한국 외교관계를 맺은 카자흐스탄 기관의 관계자분들까지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사진행이나 조직에 관해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너무 좋아서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단, 발표주제는 좀더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일반인의 이미지, 한국 정부기관의 카자흐스탄 국적을 가진 자(고려인 별도)에 관한 정책(다문화제도 등),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정부기관들이 실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전자정부시스템 도입, 의료보험제도 시안과 같은 것) 등입니다.



**게 이리나:**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어 감사하고 무엇보다 재미있고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신 강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와 같은 세미나를 통해서 새로운 교수법 및 한국학에 있어 한국-카자흐스탄 협력 관계, 남북관계, 디아스포라, 한국-카자흐스탄 관계 발전방안에 대해서 더욱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남북통일 문제에 있어서 카자흐스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그 전개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참석 후기

### 아스타나

- 기관명: 유라시아 국립대 동양학과 한국학전공
- 설립연도: 2012년 9월
- 교원수: 3명
- 학생수: 49명 (학부 31명, 대학원 2명, 제2외국어 16명)

**안상훈:** 한국인 교원과 카자흐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세미나 강연은 카자흐스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한국 문화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아리랑에 대한 강연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실시될 공공외교세미나는 좀더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국학 교육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

카자흐스탄 여러 지역의 교원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대사관의 적극적인 후원을 바랍니다. 한국을 카자흐스탄에 소개하고 카자흐스탄을 한국에 소개할 수 있도록 여러 선생님들이 공동작업을 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일을 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면 좋겠습니다.

**김일겸:** 공공외교라는 용어가 좀 혼란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대학 등의 교육기관의 네트워크 설립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기관이 현지 각 교육기관에서 요청하고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라시아 국립대에서 학생들 상대로 '한국영화주간'과 같은 행사를 한다면, 주카자흐스탄 기관들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 기관명: 한-카 협력센터

**이브라예프 다울레트:** 전체적으로 공공외교세미나가 잘 준비되었으나 시간이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특강 수를 5-6개까지 확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토론 시간이 많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공외교의 개념뿐만 아니라 공공외교의 실질적 메커니즘을 소개했다면 더욱 재미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초대된 강사 두 분이 너무 훌륭하셨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강의시간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외교, 정치 분야별로 한국의 현황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 교환의 기회도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외교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마일로바 사울레:** 먼저 공공외교세미나 주최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공적 개최를 축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양국간의 국제관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실합니다. 양국의 관계에 대한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강연자 선정은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사님들은 쉽고 편하게 내용을 전달하셨습니다. 이근중 교수님은 접근하기 쉽게 세계 경제시스템을 소개해주시고 카자흐스탄 경제시스템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진용선 소장님의 연구는 규모가 대단합니다. 진용선 소장님은 한국 문화 유산인 아리랑에 대한 연구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수집하신 자료는 한민족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의 강연은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일정, 시간, 날짜 모든 것이 대학교에서 일하는 교원의 바쁜 일정에 적합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강의 수는 늘리고 분과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카자흐스탄과 관련된 한국 교육제도, 경제,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문제에 대한 강연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많은 참석자들이 온 이유로 이틀 동안 하루 3강의씩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참석 후기

### 크질오르다

- 기관명: 크질오르다 국립대 한국어-영어학과
- 설립연도: 2013년
- 교원수: 2명
- 학생수: 46명

**송혜수:** 1. 이런 세미나-교육이 연례행사가 아닌, 월례행사는 아니더라도 학기별 행사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 일선 교원들이 공공외교를 담당하기를 바란다면 그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 주기적으로 실시되면 좋겠습니다.

3. 공공외교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세미나가 열렸으니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지만, 강연 중에 공공외교란 '친구 만들기'란 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친구 만들기에 대한 구체적 방법, 내용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원론적인 내용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안수현:** 언제나 카자흐스탄의 교육을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이 궁금하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같은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제와 아리랑의 강의는 깊이 있는 생각을 더해 주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공공외교에 대한 서로의 개념 정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 약토베

- 기관명: 한글학교 무궁화
- 설립연도: 2000년
- 교원수: 1명
- 학생수: 41명

**박 리디야:** 먼저 공공외교 세미나를 주최한 주 카자흐스탄 한국 대사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와준 학생들의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잘 준비되었습니다.

본 세미나 내용은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특히 '아리랑' 노래에 대한 강의가 재미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아리랑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이번에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용선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세미나가 지속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참석하고, 일년에 2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참석 후기

### 우스티카메노고르스크

- 기관명: 광성컬리지 교양필수 (1, 2학년 대상)
- 설립연도:
- 교원수: 2명
- 학생수: 85명 (1학년 40명, 2학년 45명)

**주승룡:**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우스티카메노고르스크 지역 내 한국어 교원들을 모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 만남을 통해 우리 지역 내 한국어교육의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협력해서 한국어 관련 행사를 진행하거나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 참석이 계기가 되어 우리 지역 내 한국어 기관의 협력을 구축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강의 내용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오신 경험 있는 선생님들의 훌륭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런 모임의 의미와 중요성을 느끼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관명: 동카자흐스탄 국립대
- 설립연도: 1993년
- 교원수: 1명(교원) + 1명(자원봉사)
- 학생수: 24명

**토르가예바 라우산:** 본 세미나를 주최한 대한민국대사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강연 주제가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강의였고 강의 내용 또한 재미있었습니다. 내년에 한국정치상황과 카자흐스탄에 대한 한국전략 등에 대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내에 한국어와 한국문화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세미나를 소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관명: 언어교육센터 옥스포드팀
- 설립연도: 2007년
- 교원수: 1명
- 학생수: 5명



### 타라즈

- 기관명: 타라즈 사범대 영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학전공(제2전공)
- 설립연도: 2001년 9월
- 교원수: 1명
- 학생수: 75명

**조동균:** 세미나를 주최한 대사관측의 정확한 의도를 모른 채 참석했습니다. 공공외교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추후 우리 한국어 교원 입장에서 공공외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실제적인 활용을 위한 자료나 정보를 위해 네트워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관명: 타라즈 혁신인문대 제2외국어학과 영어-한국어
- 설립연도: 2013년 9월
- 교원수: 1명(정식교원) + 1명(자원봉사)
- 학생수: 46명

**김관호:** 카자흐스탄과 한국을 이해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비정식민간외교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외교의 주체로 공식화된 직업군의 교수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외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참석 후기

### 탈디쿠르간

· 기관명: 제티수 국립대

**이 엠마:** 처음에는 세미나의 주제와 강의 주제가 약간 낮설었지만 세미나 진행, 대사관 관계들의 참석, 우수한 한국학 학자들의 강연을 통해 세미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행사의 중요성과 효과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의 절실한 문제를 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는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주최측이 애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최한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세미나에서 얻은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앞으로 교육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미나를 여러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기관명: 탈디쿠르간 세종학당

- 설립연도: 2012년 9월
- 교원수: 3명(교원) + 1명(행정)
- 학생수: 100명 (2010년부터 현재까지 수료자 944명. 매학기 100명 내외 등록)

**서은성:** 민간외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각 대학과 여러 활동을 통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과의 교류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첫 시작의 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외교세미나 첫 회였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은 25년 동안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어떠한 외교관계를 만들어 왔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지난 역사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두 나라의 관계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정리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가 개인적으로는 좋았지만 세미나의 제일 중요한 목적과 목표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외교부(대사관)에서 문화원, 교육원 관리를 하고 계신데, 민간외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원들의 연결과 소통 그리고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정비되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문화원에서 영화 상영을 하는데, 큰 도시 중심으로 진행되어 작은 도시에도 그 도시에 맞는 규모에서 영화 상영을 하고 싶을 때 영화 파일이나 상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중앙기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필요 시 연락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체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소통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담당자들은 현장의 필요에 최선을 다해 반응하고 현장의 민간외교 중심에서 있는 교수, 선생님들은 자신의 역할을 더 잘해서 그것이 앞으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공공외교의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젤디바예바 자니야:**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이 주최한 본 세미나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한국학분야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국어를 얼마 전에 가르치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특히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정치, 경제, 양국 관계에 대한 지식습득의 중요성 또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외교는 국가 간의 외교를 포함하여 협력국가와의 우호관계 형성을 목표로 하여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가의 가치 이해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세미나의 주제를 좀 더 다양하게 정하고 참가자 선생님들을 분야별(사회와 문화, 외교정치, 의료 등)로 나누어 세미나가 이루어지면 더욱 효과적일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참가자들은 한국어와 한국학을 가르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교육학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실질적인 워크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은미:** 이곳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민간외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공공외교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어 반가웠고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제시스템에 대해 들여다보고 아리랑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강의에 앞서 공공외교의 개념 정리와 해야 할 역할, 알아야 할 내용 등 좀 더 구체적인 소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공공외교라는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카 국제관계의 역사와 현재, 앞으로의 방향, 한-카 관계의 중요성,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등 기본적인 이해와 개념이 정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 기관명: 한글학교 아침노을

**박 타티야나:** 먼저 공공외교 세미나를 주최한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세미나는 이제까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카 협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게 된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유명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아리랑 노래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이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아리랑 노래를 알지만 아리랑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미나가 해마다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미나에서 카자흐스탄의 경제 위기가 한-카 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참석 후기

### 침켄트

- 기관명: **도산한국문화한글학교**
- 설립연도: 2017년 2월
- 교원수: 2명(한국어) + 2명(태권도)
- 학생수: 20명

**김 유리:** 이번 세미나에 대해 알고 나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먼저 본 세미나 준비에 애써주신 주최측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세미나의 강의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세미나에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간의 관계를 위한 중요한 주제가 공개되었습니다. 양국간의 외교관계는 지도자들이 만들고 공공외교는 두 나라의 국민이 상대방 이미지를 인식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의 이미지를 한국어 교사와 한국문화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당연히 두 나라간의 거리가 큰 것은 문화나 사고 방식의 차이 이유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서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것은 또한 실무관계나 문화 교류에서 오해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어 교사들이 카자흐스탄인들에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사고 방식이나 한국 문화의 특징을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세미나에 참석해서 우리 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려인으로서 아리랑 노래에 대한 강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리랑은 언제나 한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노래였습니다.

다음 세미나에서는 한-카 양국간의 교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고 해외동포들에 관한 한국 정부의 정책을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기쁘겠습니다.

**최 알렉산드르:**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본 세미나를 통해서 타지역에서 오신 선생님들을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세미나를 통해서 카자흐스탄에서 대한민국 국가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의 대중화 과정을 통하여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더욱 많은 유학생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고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본 세미나에 한국기업 대표들을 초청하여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기업들의 사업가능성에 대해서 들었으면 합니다.

앞에 말한 한국대중화에 있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과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화(태권도, 사물놀이, 전통춤)에 대해서 더욱 많은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침켄트의 경우 인적자원이 충분하여 경제발전가능성이 높은 도시이지만 한국문화 대중화가 남쪽지역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본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한국문화 대중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 기타

**익명:** 1. 앞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때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도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2. 강의 3개를 1시간씩 하면 좋겠습니다.

3. 한국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정책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세미나를 진행할 때 강의 주제로 1-2 분야의 문제를 발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